

제목: 현대 사회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Chat GPT

학과: 컴퓨터정보보안전공 학번: 202310797 이름: 김태호

1. 서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Chat GPT가 IT 분야만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생 사이에서도 Chat GPT는 큰 화제를 끌고 있다. 특히 과제나 시험에 대학생들이 Chat GPT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어느 한 대학교에서는 과제를 Chat GPT를 사용해 제출했는데 A+가 나왔던 사례가 있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Chat GPT로 영문 에세이를 제출한 학생들이 전원 0점 처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Chat GPT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개별 교수들은 Chat GPT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표절과 대필을 악용한다면 평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AI 경계령을 내렸다. 미국의 몇몇 대학들은 학칙을 통해 AI를 활용한 대필은 표절로 규정하는 학교들도 있고, 교실 밖에서 작성해 제출하는 오픈 북 과제를 줄이거나 에세이를 직접 자필로 쓰게 하는 등 A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¹ Chat GPT 기술이 등장하여 빠르게 퍼져 나갔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거나, 자료를 조사할 때나, 심지어 프로그램 코드의 오류도 찾아 고쳐준다. 이렇게 Chat GPT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 주며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좋은 기술을 잘 활용해 AI 기술과 우리의 삶이 잘 융합된다면 더 윤택하고 편리한 삶이 될 것이다. 그러나 Chat GPT를 과제에 활용하는 것은 표절과 같은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Chat GPT를 과제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2. 본론

2.1 AI 활용 능력

요즘 인공지능과 같은 IT 분야의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IT 기술들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융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기술에 적응을 해야 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Chat GPT 역시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Chat GPT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예시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전히 저작권 침해 문제는 심각하지만 저작권 법이 강화되고 많은 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조금씩 줄어들며 개선되고 있다. 이처럼 AI를 활용

¹ 유효송 기자, 챗 GPT로 과제 낸 학생, 'A+' 줘도 문제없다?...교육계는 지금, 머니투데이.

해 과제를 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 이 기술의 좋은 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Chat GPT 사용을 금지한다면 AI 기술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 사용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AI 기술 발전은 더디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Chat GPT의 장점

과제는 대부분 학교 밖에서 진행된다. 한 번 정도는 과제를 하다가 늦은 시간이나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없는 시간이어서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hat GPT를 사용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hat GPT 기술이 없었을 때에는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인터넷이나 책은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에 비해 Chat GPT는 언제든지 질문을 하면 빠르고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처럼 Chat GPT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Chat GPT는 생성형 AI이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훈련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² 다시 말해, 이 기술은 웹 상에 존재하는 방대한 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2.3 개인 능력 향상

흔히 Chat GPT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는 표절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Chat GPT를 활용하는 학습이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창의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Chat GPT의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다. Chat GPT는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답을 듣기는 힘들다. 그리고 Chat GPT를 사용하다 보면 너무 일반적이고 뻘한 대답을 들을 때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Chat GPT에게 애매하거나 모호한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Chat GPT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AI이다. 사람에게 애매하거나 모호한 질문을 하면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AI는 애매하거나 모호한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애매하거나 모호한 질문을 하면 원하는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없다. 즉, 원하는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질문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질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한 지식과 질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질문도 알아야 할 수 있다.'

² Red Hat 2023년 10월 6일 '생성형 AI란?' 글 중.

이 말처럼 질문을 하려면 질문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질문을 만들 수가 없다면 Chat GPT를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을 들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요구된다. 필자는 전공 과제를 할 때에 코드가 잘 안 짜져서 Chat GPT에게 코드를 짜달라고 부탁한 경험이 있다. 단순히 코드를 짜달라고 부탁했을 때에는 코드를 만들어 주기는 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코드의 알고리즘에 대해 생각을 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얘기했더니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또다른 경험으로는 코드에 오류가 났을 때이다. Chat GPT에게 코드를 수정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수정할 부분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직접 코드를 분석하며 어떤 오류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했더니 수정해 주었다. 수정한 결과 코드의 오류는 해결되었고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코드와 그에 사용된 알고리즘을 직접 코드를 공부하고 분석하며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Chat GPT를 활용해 과제를 하면 창의력과 같은 개인 능력이 향상된다.

3. 반론

3.1 Chat GPT의 정확도

Chat GPT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생성형 AI이기에 잘못된 정보를 학습했을 우려도 있고, Chat 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3.2 Chat GPT에 대한 의존도

Chat GPT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Chat GPT가 쉽고 빠르게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직접 생각해 보지 않고 Chat GPT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각을 더 깊게 하지 못하고,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4. 재반론

4.1 정확도에 대한 재반론

우선, Chat GPT의 정확도는 매우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아직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되어 있고, 잘못된 정보를 학습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Chat GPT의 정보 모두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Chat GPT 기술은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 Chat GPT와 같은 AI와 공존하여 상호작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2 의존도에 대한 재반론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은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왜냐하면 작문 과제의 경우에 Chat GPT를 통해 대필을 한다면 표절을 하는 것이고 이는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작문 과제에 대한 표절 이야기는 대안/해법 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앞서 2.3에서 이야기했듯이 의존도가 높아져 생각을 더 깊게 못 하고,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은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 Chat GPT는 질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구조이다. Chat GPT에게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배경지식 뿐만 아니라, 생각을 더 깊게 해야 되고, 창의력을 발휘해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5. 결론

5.1 정리문구

따라서, 대학생들이 과제에 Chat GPT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든 Chat GPT 기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빠르고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를 빠르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Chat GPT 기술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Chat GPT 기술을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면 창의력과 같은 개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Chat GPT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만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창의력과 질문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Chat GPT 기술을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면 개인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Chat GPT와 같은 AI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IT 분야의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 기술들과 공존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Chat GPT와 같은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기술도 악용하는 사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이에 관련된 교육 역시 필요하다.

5.2 대안/해법

앞서 4.2에서 이야기했던 작문 과제에 대한 표절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필자는 Chat GPT를 과제에 활용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과제들 중에서 작문 과제는 예외이다. 작문 과제를 할 때 Chat GPT에게 글을 써달라고 해서 그 글은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명백한 표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글을 쓰는 과제를 수행할 때 Chat GPT 사용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Chat GPT를 통해 자료 조사만 미리 해오게 한 뒤 글을 쓸 때에는 학교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료

조사에 Chat GPT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나 글을 쓸 때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학교에서 글을 쓸 때에는 자필로 쓰게 하는 방법도 있고 PC나 노트북을 쓰게 할 때에는 조사해 온 자료만을 사용하고 Chat GPT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도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므로 표절 프로그램을 사용해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라 표절 의심이 간다면 점수를 낮게 주거나 너무 표절 같다는 생각이 들면 0점 처리하는 방법이 좋은 해결책인 것 같다.

5.3 전망 제시

현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Chat GPT 3.5와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Chat GPT 4가 나왔다. 앞으로는 더 발전된 대화형 AI가 개발될 것이다. Chat GPT를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AI를 막을 수도 피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AI와 함께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이런 사회에 잘 적응해 살기 위해서는 Chat GPT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올바른 교육 역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AI 기술은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할 것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활용 방안과 교육이 나올 것이다.

6. 참고문헌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84>

김주현, 작문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Chat GPT...학교에서 사용해도 괜찮을까? 학교 내 Chat GPT 활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았다, HUFFPOST, 2023.12.2 접속.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1013255210051>

유효송 기자, 챗 GPT로 과제 낸 학생, 'A+' 줘도 문제없다?...교육계는 지금, 머니투데이, 2023.12.2 접속.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PKL7273>

김민혁 기자, “챗 GPT로 과제 냈더니 A+”...대학가 ‘AI 대필’ 어찌나, 서울경제, 2023.11.28 접속.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95>

박남수 기자, 챗GPT, ‘거짓 정보 확산’ vs. ‘든든한 조력자’ 찬반 의견 팽팽, 정보통신신문, 2023.11.28 접속.

<https://www.technologyreview.kr/banning-chatgpt-will-do-more-harm-than-good/>

Rohan Mehta, “학교 내 ‘챗GPT 금지’, 득보다 실이 클 것”, MIT Technology Review, 2023.11.28 접속.